

우리들 이야기



Jesus es mi luz



“예수님은 제 빛이세요”, 비앙카 브이, 6세, 콜롬비아 툰다마 주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의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나는 경전에 참됨을 알아요”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활동을 했다. 아이들은 경전에 관련된 게임들을 하면서 복음 진리를 배우고 외우는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에 대해 배우며 갑옷을 입어 보기도 했고, 신앙개조를 이용한 낚시 놀이도 하고, 리하이의 꿈을 실연해 보기도 했다.



저는 침례를 받기 전에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물 속으로 들어갔더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토마스 비, 8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일본 삿포로 성전, 하라다 케이, 8세, 일본 카나가와 현